"'명승' 여수 향일암 일원, 보존 최선 다하겠다"

문화재청, 6월 22일 명승 지정 기념 행사

자연유산 가치 높아 명승 지정
연규 스님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재청 "지속적 관리" 약속

여수=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은 6월 22일 향일암 일출광장에서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문화재청이 여수시와 향일암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는 모습.

전남 대표 관음성지인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22일 향일암 일출광장에서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남해 수평선 위로 뜨겁게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 지평선,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 조망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거북이(금오산 지형)가 경전(향일암)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지형적 형상과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 불교 전각 등이 서로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된 곳으로 자연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가 이뤄졌으며,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경과와 보존·활용 보고 등이 진행됐다.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은 축사를 통해 명승에 걸 맞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연규 스님은 "명승으로 지정된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며 "원효 대사께서 향일암을 창건하신 이후 향일암 사부대중은 금오산과 향일암 일원의 자연을 보존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것을 인정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전통사찰보존지구에 걸맞는 금오산 향일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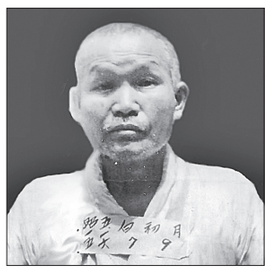
정기명 여수시장은 축사에서 "향일암은 기암괴석과 절벽 사이마다 다양한 식생과 동백숲이 어우러져 전국적인 일출 명소로 꼽힌다. 그 가치가 높아 백도에 이어 40년 만에 명승으로 지정됐다"면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꿔 문화와 예술이 피어나는 남해안 거점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여수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유산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음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등 자연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여수 향일암 일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ocal Focus

고성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전개

옥천사, 백초월 스님 순국 79주년 추모다례 예정



경남 고성 옥천사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성 옥천사 스님들과 고성지역 독립운동 지사들에 대한 항일 행적을 조명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는 '(가칭)고성군 및 옥천사 독립운동사 발굴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단기 선양사업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독립운동 선양 사업 대상자는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백석기, 이청담, 박문성, 박민오, 이종천, 신화수, 우태선, 한봉진, 변상태 등 옥천사 출신 스님들과 고성 출신 독립지사들이다.

이를 위해 옥천사는 6월 29일 백초월 스님의 출생지인 고성군 영오면 금산부락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초월 스님의 순국 79주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또한 오는 10월과 내년 5·10월 학술세미나를 열어 옥천사 스님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발굴하며, 내년 6월 29일에는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백초월 스님의 업적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며 후대에 남겨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추모 다례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故김영환 장군 추모재 연다

7월 3일 대적광전서 봉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6.25전쟁당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7월 3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한다.

故 김영환 장군(1921~1954 · 사진)은 1951년 8월 지리산 무장공비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상부 명령을 받았으나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명했고, 1954년 작전 중 순국했다. 이에 지난 2010년 정부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해인사는 "그간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던 故 김영환 장군 추모재를 재개하면서 6.25 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과 김영환 장군의 수호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문화재단, 제11회 영축문화대상 공모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제11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영축문화대상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을 모집하며, 각 부문 1명을 선정해 총 3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의 국적, 학력, 직업, 종교의 구분이 없으며 해당 공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스님일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한정된다. 추천권자는 기업체(단체)대표, 대학 학과장, 재적사찰 주지, 은사 등이며 10월말까지 후보자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심사는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지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노천당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 영천사, 지장시왕 탱화 점안법회



6월 22일 경내 극락보전서

익산 영천사가 지장보살 및 지장보살 시왕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익산 영천사(주지 혜암)는 6월 22일 극락보전에서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의 삼존불과 지장시왕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안법회는 증명법사 백산 스님, 화엄종 현공 스님, 덕치 스님, 의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전통방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영천사 주지 혜암스님은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성불을 미룰정도로 중생의 곁에 있는 보살"이라며 "지장기도를 통한 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삼세의 업장에서 벗어나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장보살과 지장시왕탱화 조성불사에 동참해주신 불자들께 감사드린다" 며 "지징보살 조성의 공덕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이 행복한 나날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한 지장보살 시왕탱화는 가람불교 노광일 불화장의 작품으로 가로 2m40cm, 세로 1m50cm의 규모이다.

익산 영천사는 암석사이에서 석간수가 분출되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곳으로 예로부터 기우제를 지내는 등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기도도량이다. 혜암 스님이 부임한 이후 매월 법보시 책자와 생활법문지를 발송하는 등 지역불교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문화단체장 위한 사찰음식 만찬



증심사 등 6월 21일 체험 행사

전남 광주 지역 문화예술기관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이 열렸다.

지난 6월 21일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 진행한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문화예술 단체인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관광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사찰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그 의미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사진〉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음식이 밥상에 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자연친화적인지 책임을 지는 시대이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오늘 사찰음식은 지역 문화를 이끄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그 무게를 느껴보는 시간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보인 음식은 치자밥, 아욱국, 꽃 초밥, 메밀빙떡, 수삼샐러드 등 12개의 사찰음식과 식전 오미자차와 다식들이다.

만찬 음식을 마련한 사찰음식 전문가 지원스님(광주 주월동 연화사 주지)은 "사찰음식은 성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밥상"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선보인 음식에 효능과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조계종 증심사와 자비신행회,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